



[illegible]

머리를 한대 얻어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가 하면, '생명, 평등, 평화'를 존중하며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게 하는 조헌정 목사님의 하늘뜻펴기(설교)는 엄격함과 연민의 정이 어우러져서 가슴을 뜨겁게 한다.

조헌정 목사님의 하늘뜻펴기는 목회자의 일주일의 자서전이라 할 만큼, 그의 삶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어 그가 하는 말의 진정성이 짙게 묻어난다.

시대적인 사회이슈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오늘을 사는 지성인이라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누구나가 이 책에서 명쾌한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 필독서로 추천한다.